

“일제 강제징용 아버지의恨 풀어주세요”

일본 6개 전범기업 대상
피해자·유족 등 33명
광주지법에 2차 집단 손해배상
시민단체 日정부 사과 촉구



14일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시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33명과 함께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단 한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 보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고(故) 박기추 할아버지의 아들 박용석씨는 “내가 세살 때, 일본으로 가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라면서 “한 평생 아버지를 불러본 적 없고 지금까지 얼 굴조차 알 수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씨의 아버지는 1942년 홋카이도 탄광에서 붕괴 사고로 숨졌다. 사망 소식도 일본 탄광업체에서 보낸 조위장으로 확인했을 뿐이다.

박씨와 박씨의 아버지처럼 일제징용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홋카이도탄광기선’ 등 6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탓에 원고 33명 중 생존자는 2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원고 33명 중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던 홋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 15명,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비시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인단인 민변은 “1차 소송에 미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과 피해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던 피해자를 포함해 2차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파산 전범기업도 포함됐다.

민변은 “파산기업인 홋카이도탄광기선을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적인 판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 탓에 피해자분들도 큰 결심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접수된 1차 소송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민변은 “1차 소송 피고기업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소송 관련 서류도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전

범 기업들은 소송 말미에 가서나 대리인을 선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미국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파산기업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밖에 없었던 유족들의 한과 울분에 주목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닌 진심어린 사과다. 앞으로 추가 소송 없이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로 피해자들의 한이 풀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41 달뜨기 22:44
해질 17:43 달지기 10:56

매서운 칼바람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구름많겠다.

광주	구름많음	-2/5	보성	구름많음	-5/4
목포	구름많음	-2/3	순천	구름많음	-2/6
여수	구름많음	0/6	영광	구름많음	-4/3
나주	구름많음	-5/5	진도	구름많음	-1/5
완도	구름많음	-1/6	전주	구름많음	-3/4
구례	구름많음	-4/5	군산	구름많음	-4/4
강진	구름많음	-4/5	남원	구름많음	-6/4
해남	구름많음	-5/5	흑산도	구름많음	3/5
장성	구름많음	-4/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북)	북~북동	0.5~1.5	북~북동	0.5~1.0
남해서부	앞바다	북~북동	0.5	북~북동	0.5
	면바다(서)	북서~북	1.0~1.5	북~북동	1.0~1.5
	면바다(동)	북~북동	0.5~1.5	북~북동	0.5~1.5

◇ 생활지수

감기 높음
뇌졸중 높음
미세먼지 보통

◇ 주간 날씨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	☁	☁	☁	☁	☁	☁
-2/5	-1/6	-2/7	-1/7	1/8	0/8	0/9

집 주변에 편의점 많으면 청소년 비만 가능성 증가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게임·스마트폰도 영향

편의점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비만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TV 시청·스마트폰 이용 시간도 비만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청소년의 비만 관련 요인에 대한 다중모형 분석(경기대 박소연)'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학교 비만은 지역·개인·가족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가 2013~2015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에서 전국 66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4240명의 개인 자료를 추출해 빈곤율, 공공체육시설·패스트푸드점·편의점·PC방의 개수, 도시형태 등 지역자료를 대입해 분석한 결과, 편의점이 유익하게 고등학생의 비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만명당 편의점은 최소 32.2개, 최대 150.3개였고 평균은 65.7개였는데, 다중분석 결과 거주지에 편의점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비만 가능성이 증가했다.

개인 요인 분석에서는 게임시간과 TV·비디오·DVD 등 스크린 시청시간, 휴대전화 이용시간이 증가할수록 비만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런 결과는 게임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켜 음식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하고, TV 시청과 휴대전화 이용은 신체활동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비만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설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 소비자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연휴를 맞아 소비

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항공여객 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건 3728건 가운데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 17.8%인 665건이 접수됐다.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최근 3년간 908건 중 19.2%인 174건이,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556건 중 15.6%인 8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관리비 회계감사 받는다

그동안 주택법 적용을 받지 않아 감시사각지대에 있던 오피스텔 상가·주상복합 건물 관리비가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오피스텔·상가·주상복합 건물 등에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존 오피스텔, 상가 및 주상복합 등은 집합건물법을 적용받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돼, 관리단과 소유자·세입자들 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인 집합건물은 앞으로 매년 의무 회계감사 대상이 된다.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은 집합건물은 구분소유자의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받게 된다.

관리인이 소유자에게 관리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12년째... 전남대, 올해도 등록금 동결

전남대학교가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했다.

전남대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위원회를 열고 2020학년도 학부생 등록금을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의 올해 1학기 등록금은 경영, 인문사회계열에서부터 치의학계열에 이르기까지 최저 168만여원에서 최고 312만여원에 이를 전망이다.

전남대가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것은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로, 첫 3년 동안은 등록금을 동결한데 이어, 2012~2014년 3년 동안은 오히려 등록금을 연속 인하했다. 이후 2015년부터 6년 동안은 계속해서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특히 2018년도부터는 학부 및 대학원 신입생들의 입학금까지 폐지했다.

한국철도, 설 승차권 압포 피해 주의 당부

한국철도도가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압포 등 승차권 불법거래 피해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14일 당부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올라오는 승차권 거래 게시글은 대부분 불법 승차권 알선 행위인 만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철도도는 설명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가보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10조 및 경범죄처벌법 3조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

승차권 캡처 이미지나 좌석번호만 전송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당하지 않은 형태로 판매되는 압포는 모르고 이용할 경우 최대 30배의 부가임금까지 지불하게 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국철도도는 주요 포털 운영사에 압포 거래 관련 게시물을 차단하도록 요청하고 역 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호 www.woori-hospital.com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첨단우리병원

척추, 관절 중점 치료

한결같은 마음으로 “곧은 척추, 굳건한 관절”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 특

백내장 오인하는 익상편, 원인과 치료

◆ 익상편이란?
익상편은 주로 안구의 내측 결막(흰자위)에서부터 각막(검은동자) 쪽으로 섬유혈관조직이 증식되어 침범, 진행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익상편은 ‘굳날개’라고도 하며, ‘백태’가 낀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증상
흰색의 섬유혈관성 조직이 검은자를 덮기 때문에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미용상 문제가 되는 것 외에 문제는 없으나, 간혹 심한 경우 난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진행이 많이 되어 동공(애기동자)까지 침범했을 경우에는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곤하고 눈이 자극받으면 충혈이 유난히 심해지기도 합니다.

◆ 치료
익상편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증상에 따라 증상의 호전을 위해 약물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물치료로 익상편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각막을 많이 침범하지 않은 대개의 경우는 경과 관찰만 하면 되고, 진행이 많이 돼 동공 근처까지 침범한 경우에는 시력보호를 위해 수술로 제거하게 됩니다.

◆ 수술방법
익상편 수술은 국소마취로, 약 30분 정도면 끝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통증과 이물감이 있을 수 있으며 약 한 달간 간헐적인 통원치료를 해야 합니다. 수술 시기의 결정은 동공까지 익상편이 침범했을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생활에 얼마나 지장을 주느냐를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